



# Shining Star Children House

## News Letter



성광고아원을 주님안에서 기쁨으로 기도하시며 동역하며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그 동안도 안녕하십니까?  
우리 성광 고아원의 생일이 어느덧 6년이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이 모두 모여 빵을 떼며 노래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갖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것을 돌이켜 보면서 과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잠시 생각해 봅니다.  
이들이 지금은 개구쟁이들이지만 커져서 이 나라에 귀한 일꾼들이 되어야하는데 특히 예수님의 증인들이 되어야하는데,,,,,  
나이도 들면서 마음도 바빠져 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자라면서 사춘기 학생이 많아지니 좀 더 관찰이 필요해 밤마다 CCTV를 설치 했습니다.  
개인 침해도 있겠지만 많은 고민 끝에 결정을 했습니다.  
설치하고 보니 어린이들이 긴장했는지 분위기가 너무 좋아졌고 장난기가 많이 없어 졌으며 장난하다가도 카메라하면서 서로 조심하는 분위기입니다.



우리 성광 고아원에서 부엌에서 가장 수고가 많고 오래된 베타랑급의 주방장이 결혼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속에서 한국사람 특히 목사님의 장남과 인연이되어 서로 결혼 하게 되었습니다

스텝 모두가결혼 파티에 가서 축하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살면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나 전도하는 대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어린이들의 방에 옷장이 6년 정도가 되니 많이 고장나고 부러져 있어 간단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신앙으로 무장하는 시간이 하루중 새벽예배입니다.

5시 정각이면 예배가 시작되며 찬송과 기도로 그리고 성경을 2장을 읽습니다.

읽은 성경 구절에서 가장 중요한 한절을 뽑아 암송하게 하고 낮 시간에 그 성경 구절을 한 어린이 한 어린이 암송하게 합니다.

못 외웠거나 부족하게 외웠으면 후식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계기가 되어 학교의 성적이 오르는것을 볼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심 봅니다.감사합니다.(김영익.김영수선교사올림)